

# 장수 농특산물 · 레드푸드 알린다

장수군-푸드스트, 업무협약 체결...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 안정적 판로 개척

장수군은 지난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B2B 식자재 전문 기업인 푸디스트 주식회사(사조그룹 계열)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푸디스트 주요 실무·책임자가 참석해 군 농특산물·레드푸드 판로 확대와 지역 일자리, 축제 홍보,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장수군 대표 축제인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수 농특산물과 레드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푸디스트는 장수 농가와와의 지거래를 확대해 농특산물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 고자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장수군과 푸디스트는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군의 대표 농특산물과 레드푸드에 대해 제품 기획, 상품 개발, 유통 등 전반에 걸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한다.

더불어 장수 지역 농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기업과 농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장수 레드푸



장수군은 지난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B2B 식자재 전문 기업인 푸디스트 주식회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를 활용한 메뉴 공동 개발 △역유산 휴게소 등 푸디스트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 확대 △장수군 직매장·장수물과 푸디스트 전국 유통망(마트·온라인몰) 연계 판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장수군은 푸디스트가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휴게소 운영 등 전국적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군 농특산물의 전국 단위 판매 활성화와 레드푸드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 및 휴게소 판매 확대 등 다양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재료 지원 및 나눔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상생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푸디스트와의 협약을 통해서 장수군 농특산물과 레드푸드가 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농가 판매 확대는 물론 청년창업, 일자리, 지역축제 홍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상생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27일 농업과학과 세미나실에서 제17기 반딧불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 반딧불농업대학 졸업식 개최

113명 수료생 배출... 사과과 이남호 학생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무주군은 27일 농업과학과 세미나실에서 제17기 반딧불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반딧불농업대학장),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농업인 학습단체 회장 등 주요 내빈들과 졸업생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과과 이남호 학생이 지역발전과 농업대학 과정 중 교육자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농업진흥청장상을 받았으며 농업마케팅과 엄유나 학생과 수박과 윤종기 학생이 과대표로서 공로상(반딧불농업대학장)을 받았다.

수박과 윤종기, 강수복, 박경란, 한순자 학생은 '개근상(반딧불농업대학장)'을, 사과과 김옥기, 오세정, 배성숙 학생은 '성실 이수상(반딧불농업대학장)'을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사 등 생업을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을 위해 뜨거운 학구열을 불태워 주신 여러 분께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농업대학을 통해 배운 내용들이 다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든든한 경쟁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반딧불농업대학은 교육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키워 급변하는 기후와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지난 2월 사과과(심화)와 농업마케팅과(실무), 수박과(실무)에 총 138명이 입학해 113명이 졸업 또는 수료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농촌관광, 식품가공, 친환경농업, 한우, 과수, 온라인마케팅, 등 37개 과정이 운영(2009~2025)됐으며 2,029명의 졸업생 및 수료생이 배출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채소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현장평가회

진안군은 27일 안전면과 진안읍 일원의 갯잎·쪽파 재배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재배 상황을 확인하는 등 채소 분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평가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된 갯잎(갯잎)과 쪽파 수경재배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문성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농가를 찾아 재배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기술 적용 상황을 세세히 청취했다.

시범사업장은 토양 대신 인공배지를 활용해 물과 양분을 적정하게 공급하는 스마트팜 기반의 수경재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방식은 농작업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연작장애 예방과 작업 자세 개선 등으로 생산성·품질 향상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에이즈 예방 주간' 운영

진안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에이즈 예방 주간'을 운영하며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 홍보에 나선다.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인해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각종 질환에 취약해지는 감염병이나,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주된 감염 경로는 성 접촉이며,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보건소는 안전한 성생활 실천과 정기적 검진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 접촉 시 예방수칙 준수 및 감염 의심 시 신속한 검사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HIV 무료·익명 검사와 매독 무료 검진을 상시 제공하고, 감염인에게는 진료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오는 12월 4일에는 진안고원시장과 터미널에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무료 검진 안내와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고등학교 및 공공기관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청소년과 군민의 성 매개 감염병 인식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촌지도자회 무주군연합회  
농촌 환경정화 활동 펼쳐

무주군은 농촌지도자 무주군연합회(회장 유종석)에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약 민병과 영농 폐자재(차광막, 반사필름) 수거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10월 부남면(회장 최왕진)을 시작으로 적상면(회장 고귀식)과 무주읍(회장 전복식), 안성면(회장 공환규)이 각각 주관한 가운데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살기 좋은 무주,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부남면 회원 30여 명은 10월 25일 영농폐기물 1.38톤을 수거했으며 적상면 회원 40명은 11월 21일 1.62톤, 무주읍 회원 25명은 1.88톤을 수거하고 분리배출 캠페인도 펼쳤다. 같은 날 안성면 농촌지도자회 회원 60명이 폐농약 용기 3톤을 수거했으며, 적상면 하가길 도로 주변 정화 활동도 벌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국가예산 국회단계 총력 대응

주영환 부군수, 국회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 집중 건의

진안군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영환 진안부군수 등 관련 공무원들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 예산 국회 단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방문은 국가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건의된 주요 사업은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170억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보강(30억원) 등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현안들이다.

진안군은 각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상세히 전달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과 농촌 정착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확대 시행과 안정적 재정 반영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주영환 부군수는 방문 기간 동안 △안호영 의원,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이원택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윤준병 의원 등을 직접 만나 사업의 시급성과 근거 자료를 전달하며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독거노인 공동돌봄센터 운영으로 돌봄 공백 해소

장수군이 지역 내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 고립·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돌봄운영센터가 주민 주도형 지역 돌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군은 지난해 번안면 상동마을 동화교회(대표 유혜자)에서 독거노인 공동돌봄운영센터 시범사업(6개월)을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사업 기간을 9개월로 확대해 방문보건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확대·운영하고 있다.

민선8기 최훈식 장수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독거노인 공동돌봄사업'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어르신들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마을 내 유흥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마을 내 공동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



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으로, 번안면 독거노인 공동돌봄운영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7명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식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샴푸만들기, 주방세제 만들기 등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들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